

“달빛동맹은 대한민국 발전동맹”

바른미래당 DJ센터서 광주·전남 공동개편대회 광주시당위원장 권은희·전남도당위원장 주승용

바른미래당은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공동개편대회’를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공동개편대회에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하태경·정운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달빛동맹을 맺었고, 달빛동맹은 영호남의 동맹이다”면서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하는 동맹이며 호남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단합을 추구하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바른미래

당의 동서화합의 가치를 적극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호남은 진보와 좌파, 영남은 보수와 우파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광주·전남에도 건전한 보수, 중도세력이 있고, 영남에도 합리적 진보가 있다. 지역으로 나눠서는 안된다”면서 “나라를 망친 구태정치, 망국적 지역감정 악용으로 한 곳만 짝이었던 광주와 대구는 오히려 지역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는 “촛불정신은 국민의 명령이고, 적폐정신을 적극 지지

한다. 그러나 현정부는 먹고사는 문제, 경제·민생·일자리가 무능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과거에 얽매어있는 현 정부도 아닌,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개편대회에서는 권은희 국회의원을 광주시당위원장에, 주승용 국회의원을 전남도당위원장에 각각 선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중앙당과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모와 예비후보자격심사를 진행하는 등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 일정을 본격화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위선·무능 판치는 세상 혁파”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출마선언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경쟁하는 ‘1여(與)2야(野) 3파전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7년 전 서울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으나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는 양보를 통해 박원순 현 시장이 범야권 단일후보로 올라서는 발판을 만들어 준 바 있다.

그는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하셨던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되새기고, 사과드린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을 겨냥한 듯 “서울시장직이 다음 선거를 위해 인기 관리하는 자리가 돼서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할 수 없다”며 “저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이 열어준 혁신의 길을 시정에 적용해 시민의 삶을 편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6·13 선거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꼭 투표해주시기 바라

다. 표는 한곳으로 모아야 힘이 되고 의미가 있다”며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비례대표 3명 “불모 잡지 말고 당적 선택권 달라”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달리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은 4일 당 지도부에 당적 선택권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대표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 소속히 (우리에 대해) 출당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겨냥,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보수 합당을 추진하고, 이를 원치 않는 비례대표 3인을 아직까지 불모로 잡고 있다”며 “천만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사인을 한 바 있는데도 바른미래당 출범 두 달

이 다 되도록 비례대표 3명의 당적을 정리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닌 ‘당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안 전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비례대표 3명은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과 정치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장 의원의 경우 평화당 대변인도 맡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평화당의 선대위 복장인 녹색 재킷을 입고 ‘최고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임택 “지역상권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필요”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지역경제공동체의 유지와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젠트리피케이션(중지내몰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동구의 경우, 동명동과 장동 일대는 젊은 상인들이 식당, 카페 등 작은 매장을 열고 인기를 끌면서 맛집과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지만, 언제든지 대형 상업 자본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지키고 살려낸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 지역상권 및 주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의장은 “지난 12년 의정활동과 생활정치 경험을 북구청장이라는 더 큰 그릇에 담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북구를 건설해 주민께 보답하고자 한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장과 균형·고려·모꼬지·행복을 새로운 북구 건설 5대 원칙으로 정했다”며 “변화의 물결과 혁신의 기류에 ‘새로운 북구’라는 배를 띄워 살기 좋은 자치구, 살고 싶은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진 “빛고을노인타운 주말에도 개방해야”



최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토요일에도 개방돼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토요일 개방으로 인한 주말 근무 문제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동양 최대 규모인 노인건강타운을 21세기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대화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이 한층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정서적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충훈 순천시시장 출마 선언



조충훈 순천시장이 4일 순천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고 맡기는 지방정부, 성공의 보증수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생태와 정원의 대표 도시를 완성해 온 순천시가 멈출 수 없다”며 “제4차 산업혁명 바람회 개최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천 집월대,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정원산업, 웹툰산업 등을 중심으로 4년간 모두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김상훈 “일신방직 부지에 방직박물관 건립”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북구 일신·전남방직공장 부지 활성화 방안으로 근대방직박물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은 근대 산업화의 역사현장으로 학생들의 경제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도시 재생 사업인 리빙 헤리티지를 통해 방직공장 이전부지를 도시활성화 거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대방직박물관과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게임 산업,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첨단섬유산업, ICT엔터테이먼트 등 첨단문화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보전과 개발을 함께 하자”면서 “개발로 사라지는 옛 마을의 흔적을 보전해 주민들의 추억과 마을 역사, 공동체 문화를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구례군수 출마 공식 선언



이창호 전남도의회원이 4일 구례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구례군 구례읍 드림타워 2층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편 가리기를 통한 민심 분열 등 구태를 반복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발전하고 화합하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안전자금 및 농·축산물 수출 진흥자금 조성, 인재육성 기금 확대, 일원화된 관광시설사업 통합 추진팀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박정욱·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kwangju.co.kr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쟁률 3.18대 1

22개 기초단체에서 70명 신청 ... 광역의원 2.17대 1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 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 공모 접수 마감한 결과, 22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 모두 70명이 신청, 3.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수, 나주, 장흥, 함평, 신안 기초단체

장 선거에 5명씩 도전했으며 광양, 곡성, 완도에서는 1명씩만 신청했다.

목포시장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예측됐던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응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은 52명 정원에 113명이 신청해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흥 제1

선거구가 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211명을 뽑는 기초의원 후보 공모에는 290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1.37대 1이었다.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향남 호남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용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